

#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김효은\*

- I. 머리말
- II. 인민대중제일주의 개념과 의미
- III.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적용
- IV. 인민대중제일주의 특징과 전망
- V. 맺음말

## 국문요약

김정일의 강성국가 유산을 넘겨받은 김정은 시대 키워드는 '인민'이다.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고 최근 노동당 개정 규약에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의미와 특징 및 전망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통치의 근간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립하고 그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사상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사상으로 이어지고 김정은 시대에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확립되었다. 김정은의 통치이념이 김일성-김정일주의라면 그 본질인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통치전략이다.

북한 사상의 핵심 개념은 '인민대중'이다. 북한에서 인민대중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혁명의 주력군이며 주체사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민위천' 사상에서 출발하고 체계화되었다. 김정은 또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애민리더십으로 정권을

공고히하고 성과 만들기에 나섰다. 온당과 온사회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것을 주문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경제건설을 위한 인민과 군대, 관료의 독려수단으로도 작동했다.

최근 노동당 규약에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격상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방식이었던 선군정치가 선군사상이 된 것처럼 북한의 지도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당과 국가의 운영 원리로서, 사회의 효율적 통치기제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김정은의 과제이다.

**주제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 대전대학교 DMZ연구원 객원교수

## I. 머리말

김정은 집권 10년,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어떤 사상을 확립하고 통치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나? 3대 세습국가인 북한에서 선대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상문제는 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하는 명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sup>

권력을 장악한 집단 또는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유지하기 위해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는데 북한의 경우 더욱 정교하게 권력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이론화했다.<sup>2</sup> 김정은 또한 수령의 후계자로서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확립했다. 그리고 집권초기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줄곧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장해왔다. 김정은 집권 10년의 키워드는 ‘인민’이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략노선에 따른 정책행보도 활발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차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했다.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정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했다. 기존 당규약에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상당기간 존속했던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등장했다.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등장하고 강조된 배경과 의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이번엔 ‘정치’로 격상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김정은의 통치전략을 전망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어떻게 정립하고

<sup>1</sup>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 p. 1.

<sup>2</sup>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p. 31.

적용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부터 김정은 통치이념으로 작동했다. 김정은은 선대 수령의 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그 사상·정신적기원을 선대 수령들의 ‘이민위천’에서 찾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으로 작동했다. 경제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인민의 지지를 얻고 인민과 관료를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은 물론 당과 국가관료에게도 적용된다. 대 인민 메시지로는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내가 열심히 해서 잘살게 해줄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며, 대 관료 메시지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성과를 낼 것’이며, ‘관료주의에 빠지는 것은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 사회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며 관료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집권 초기에는 주로 경제발전과 리더십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과 동원전략으로 사용했으나 최근 ‘정치’를 붙임으로써 전 사회의 통치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정치방식 및 투쟁방법으로서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자력갱생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국가제일주의라는 시대인식,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정치방식, 자력갱생전략이라는 방법론의 조합<sup>3</sup>으로 통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를 열고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경제발전 계획 실행에 당세포들은 물론 전당이 총력집중할 것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군정치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에서 선군사상으로 승격되었듯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처럼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체제 결속과 발전 동력이 될지는 김정은 시대의 과제이다.

<sup>3</sup> 홍민 외, “북한 조선로동당 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2021 No.1 (2021), p. 3.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MTRYDPH7/d9044072-21f4-4ffb-bb48-0fc73b6e3e7c.pdf> (검색일: 2021.4.15.).

## II. 인민대중제일주의 개념과 의미

### 1. 정의

2021년 4월 21일 로동신문 사설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본질을 “인민 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라고 설명했다.<sup>4</sup> 이는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 데 대한 한없이 숭고한 이념”<sup>5</sup>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정치’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이다.

김정은 시대 정책 목표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김정은 시대 통치전략을 제시했다.<sup>6</sup>

김정은은 집권 초기 핵 경제·병진노선을 채택, 자원을 핵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처음 나왔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주장했다.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는 것이다.<sup>7</sup> 2015년 10월 10일 연설에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김정은은 2013년 첫 육성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했고, 2014년 신년사에는 “일군을 위하여

<sup>4</sup> “‘인민대중제일주의’ 해설.. ‘인민을 위한 정치,’” 『뉴스1』, 2021.4.21., <<https://news.v.daum.net/v/20210421095115106>> (검색일: 2021.4.15.).

<sup>5</sup>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16), p. 3.

<sup>6</sup> 이해정은 김정은 시기(2012.1.1.-2020.1.1.) 발표한 문서들을 분석,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이해정 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 p. 168.

<sup>7</sup>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1.30.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며 인민을 위한 일군의 역할을 제시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해 “인민생활향상”에 힘쓰라고 했고, 2016년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sup>8</sup>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제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 사업추진의 핵심원리로 자리 잡는데,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 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 실시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주도세밀한 정치공세를 전개”했다고 평가했다.<sup>9</sup>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핵심 개념은 살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먼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한다.<sup>10</sup>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는데 중요 내용의 하나”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본성적 요구”가 된다.<sup>11</sup>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설명하는 표현을 보면 김정은 시대 최고의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인민대중제일주의보다 더 숭고한 이념은 없다”는 것이다. 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 “주체사상을 진수로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혁명사상”,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본성”, “당사업전반에 일관되어야 할 근본이념”이다. “우리 당이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는 참다운 어머니당이기에 때문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된 숭고한 이념”이라는 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것은 정권기관 일군들의 중요과업이다.<sup>12</sup> 그러므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sup>8</sup> 임을출, “김정은의 경제리더십,” 정성장 외, 『김정은 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pp. 178~179.

<sup>9</sup> [전문] 북 노동신문, 제8차 당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 ①, 『충북청년신문』, 2021.1.9., <<http://www.ynanum-press.kr/news/view.php?id=212581>> (검색일: 202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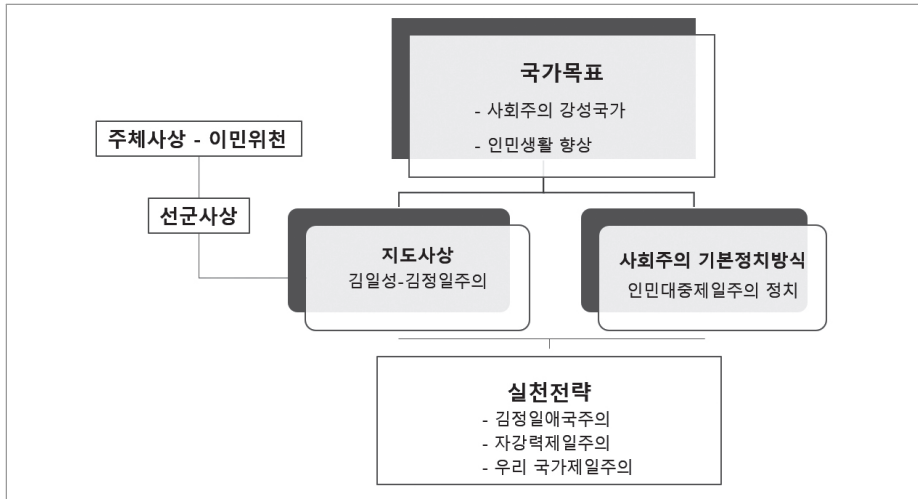
<sup>10</sup>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 p. 3.

<sup>11</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pp. 11~12.

<sup>12</sup>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것은 정권기관 일군들의 중요과업,” 『민주조선』, 2016.3.30.

확립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혁명적 구호 밑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당풍”이므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에게 값 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림 1〉 김정은 시대 국가목표와 사상, 실천전략



\*출처: 저자 작성

## 2. 지도사상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북한은 사상을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자연과 사회 또는 그 구체적 대상에 대한 관점과 입장, 견해”라고 설명한다.<sup>13</sup> 지도사상은 “당, 국가 및 그밖의 일정한 조직과 인민들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는 사상”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다”라고 설명한다.<sup>14</sup> 지도사상은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할 만큼 중요하다. “민족의 위대성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다.<sup>15</sup>

<sup>13</sup>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1107.

<sup>14</sup>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579.

<sup>15</sup> 정광현,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 지도사상의 위대성,” 『천리마』, 2018년 제1호 (2018), p. 23.

즉 북한에서 지도사상은 북한 권력구조의 안정과 강화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정책결정 및 집단과 개인의 행동, 사고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통치매커니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6</sup> 김정은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북한에서 ‘정치방식’은 ‘정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어떤 정치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정치 위력과 민족의 전도가 좌우된다’고 한다.<sup>17</sup>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그 근본요구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정치방식으로서, 다른 정치방식의 작용과 역할을 규제하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적인 정치방식이다.”<sup>18</sup>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은 사회주의 정치 실현에서 나서는 근본요구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근본이념과 근본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정치방식이고 다른 정치방식들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치방식이고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전역사적 과정에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전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이라고 말한다.<sup>19</sup>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가 북한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었다. 그 이유는 선군정치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방식이기 때문”이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적인 정치방식이기 때문”이며, “제국주의와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방식이기 때문”이다.<sup>20</sup> 자주성과 인민성, 사회주의 승리성이 북한에서 기본정치방식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셈이다. 선군정치는 2019년 개정 전인 2016년 헌법에까지, 2021년 개정 전인 2016년 노동당 규약까지 등장한다.

최근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했다. 선군정치도 사회주의

<sup>16</sup> 김환석, 『북한 지도사상에 관한 연구: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 6.

<sup>17</sup>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 『로동신문』, 2001.3.17.

<sup>18</sup>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 『민주조선』, 2010.3.30.

<sup>19</sup> 박학철,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2006), pp. 52~56.

<sup>20</sup> 김양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2006년 제4호 (2006), pp. 52~56.

기본정치방식으로 제창한 이후 선군사상으로 발전<sup>21</sup>했는데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고 실행해나가는 정치방식으로서 김정은 시대 핵심 지도사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 3. 주체사상, 선군사상과의 관계

북한은 2012년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다”라고 했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sup>22</sup> 계급 보다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인 북한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 사상”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량인 만큼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노선과 방침을 세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는 수령론과도 연결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은 ‘이민위천’의 사상정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민위천의 사상정신으로 인민대중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창시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혁명과 건설, 각 분야의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는 데 근본원천이라는 것이다. 김정일도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이민위천의 사상이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조국애를 키워주고 민족의 자주발전과 룡성변영의 길을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사랑”이라며 주체사상의 근원을 ‘인민사랑’에서 찾았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대폭 개정했다. ‘주체사상 규정’을 삽입하고 ‘권력이 집중된 주석제’를 신설하여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화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sup>21</sup> 김갑식,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2021.1.14), p. 71.

<sup>22</sup> “사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다,” 『로동신문』, 2013.12.27.



지도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주체사상을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하였다.<sup>23</sup>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에 변화가 생기자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고,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고 선군정치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주석으로 재추대된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는 시정연설을 했다.<sup>24</sup> 우리 식 사회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면서다.<sup>25</sup>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의 위기 속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중심이며 그러기에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임을 역설한다.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 신념과 의지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주체의 사회주의이며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라고 하였다.<sup>26</sup>

김정일의 선군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로 연결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말한다. “선군정치가 우리 식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인민을 위한 정치를 훌륭히 떠나갈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에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이다. “혁명군대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인민의 군대”이므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sup>23</sup> 김창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백두혈통과 정치리더십』 (전북: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p. 253.

<sup>24</sup>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5.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sup>25</sup>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5.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sup>26</sup> 윤명현, 『우리 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22~23.

믿음을 고유한 본성”으로 한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으므로 “인민군대를 중시하고 강화하는 것이 곧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강화”로 된다는 것이다.<sup>27</sup>

선군사상 또한 주체사상에서부터 나왔다고 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혁명 원리를 구현했다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옹호실현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는데, “선군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혁명무력에 의거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김일성 사망 후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김일성의 ‘유헌통치’에서 찾으면서 김정일 중심의 통치체제를 공고화했다. 1992년 개정에서는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해 주석과 국방위원장을 분리하여 국방위원장이 군부를 통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나란히 선군사상을 추가함으로써 선군사상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되었다.<sup>29</sup>

#### 4.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은 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정권의 존립근거라고 볼 수 있다. 세습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선군을 통치 전략으로 내세웠듯이, 김정은은 선대의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라 명명하고 주체사상과의 관계 속에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의 지도사상이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떠나서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 4월 6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sup>27</sup> 윤명현, 앞의 글, p. 212, 215, 216.

<sup>28</sup>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p. 40~41.

<sup>29</sup>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17), p. 28.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처음 등장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라고 선언한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30</sup> 담화 직후 4월 11일 열린 제4차 대표자회 때 채택한 로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규정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20일 김일성 탄생 100돌 기념 논문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진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31</sup>

2012년 7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담화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가 등장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숭고한 조국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 숭고한 후대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김정일의 애국 정신을 실천하여 김정일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2</sup>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며 이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갈 것을” 천명했다.<sup>33</sup>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행한 혁명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사상이고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확립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선대의 ‘이민위천’을 끌어온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사상

<sup>30</sup>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4.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3), pp. 6~7.

<sup>31</sup>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2012.4.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29.

<sup>32</sup>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2012.7.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8~10.

<sup>33</sup> 김정은, “2013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리론활동을 벌여오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두분이 창시하고 심화발전시킨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시킨 것을 김정은의 불멸의 업적으로 칭송하고 있다.<sup>34</sup>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5년 들어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구체화된다. 이민위천사상을 계승한 김정은은 2015년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연설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라고 했다.<sup>35</sup>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 구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서 발전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구호를 내세운다. 이 구호는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복무로 일관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 된다. 당과 수령의 인민에 대한 영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실현을 위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통일시켜 반영하는 과학적인 노선이 된다. 군대에게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봉대 역할을 주문한다. 경제국방병진노선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 국력을 높이면서 인민생활도 향상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논리로 정당화된다.

북한은 2012년 당 규약을 개정해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꾸었다. 같은 해 헌법개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 것처럼 김정일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올리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해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했다. 2016년에는 국무위원장이라는 국가기구 내 최고직위를 신설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당규약서문은 종전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이다”로 바뀌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개정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sup>34</sup>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 p. 3.

<sup>35</sup>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2015.1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11.

지침으로 삼는다”로 바뀌었다. 2021년에는 당규약 서문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정식화”했다.

〈표 1〉 김정은 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 변화(헌법, 당규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헌법	2012년	김일성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
	2019년	(지도적지침)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당규약	2012년	(조선로동당) 김일성의 당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
		(지도사상)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2016년	(조선로동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정치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존속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을 당사업 과제로 제시
2021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속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최고 강령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선군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제시	

\*출처: 저자 작성

### III.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적용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등장한 이후 대내외 상황 변화와 김정은 리더십에 따라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고 실제 정책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정치적 메시지는 초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논리에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핵심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발전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2012년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5년 그 개념을 확장해 전 국가와 사회 생활의 근본지침으로 자리잡는다. 특히 당 일군들에게 멸사복무를 외치며 관료 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한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수령-당-인민-군대가 혼연 일치로 당 건설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는 구호가 된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식 친인민담론으로 공식화됨과 동시에 통치전략이자 사회통합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sup>36</sup>

그러나 2016년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열고 경제발전전략을 수립·추진 했지만 경제발전에 성과가 나지 않자 2017년부터는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반성 분위기로 전환한다. 2018년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하면서도 인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덧붙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단계 올라가면서 김정은의 통치전략으로 완성된다. 국가운영에 있어 전 영역에 적용하겠다는 통치전략이자 사회운영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발전전략으로 각종 건설과 경공업 생산, 농수축산업에서의 독려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에서는 교육을 비롯한 보건, 복지 등 사회문화 전반과 유희장, 체육시설 건설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다수의 인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인민생활 향상의 정책현장으로 분주히 움직이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실천하려고 하였다.

## 1. 정치분야

정치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정책목표이자 김정은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통치 기반 공고화를 위한 통치전략으로 작동했다.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의 유훈에서부터 시작한다. 2011년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담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장군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생활 향상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셨”으니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37</sup> 2012년 신년사에도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먹고 사는 문제는 김정은 집권 첫 해부터 국가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sup>38</sup>

2012년 4월 6일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sup>36</sup> 신병주,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 103.

<sup>37</sup>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1.12.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5.

<sup>38</sup> 김정은, “2012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2.1.1.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성국가 건설의 실천과제가 인민생활 향상임을 말했다.<sup>39</sup>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집권 초기 민생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sup>40</sup>

김정은의 인민생활에 대한 강조는 김정은의 인민사랑으로 표현되는데, 2012년 4월 20일 김일성 탄생 100돌 즈음 발표 논문,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에는 “이민위천 좌우명”, “인민대중을 터전으로 혁명활동”, “인민대중 자주성 옹호 실현”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2013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추진을 위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된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을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 듯이 일떠세울 것”이고 추진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2015년부터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강조점이 ‘멸사복무’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극복으로 이동한다. 2015년 신년사에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기관 일군들이 멸사복무할 것을 강조하고,<sup>41</sup>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로도 활용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구호야말로 우리 당의 인민관의 숭고한 발현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높이

<sup>39</sup>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4.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3), p. 18.

<sup>40</sup> 김정은,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2012.4.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12.

<sup>41</sup>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민주조선』, 2015.1.17.

추켜든 또 하나의 수령결사옹위의 기치이다.”<sup>42</sup> 멸사복무에 대한 강조는 2015년 10월 10일 열병식 연설 “멸사복무는 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에서 한마디로 정리된다.

2015년 2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채택한 결정서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과 당조직과 정치기관, 내각 등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sup>43</sup> 2015년 10월 4일 당 창건 70돌 즈음 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에서도 “전당적으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주체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될 것을 요구한다.<sup>44</sup>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김정은 시대 우리 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016년 10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담화,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 데 대하여”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며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인 것이 가장 정의로써 최우선시”된다고 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이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라는 것이다.<sup>45</sup>

2017년부터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인민 사랑의 마음만은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나를 굳게 믿어 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2016년에 당 대회를 열어 당-국가체제로

<sup>42</sup> “멸사복무,” 『로동신문』, 2015.3.21.

<sup>43</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결정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하여> 채택,” 『로동신문』, 2015.2.13.

<sup>44</sup>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 118~119.

<sup>45</sup> 김정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2016.1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 1~2.



복귀하고 국무위원장에 올라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한 김정은에게 2017년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힘차게 추진할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자신과 인민, 관료 모두에게 독려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했지만,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2020년 초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코로나19 등 3중고로 경제발전이 전기를 이루지 못하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한다. 제8차 당대회 개최를 발표한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2020.8.19.)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지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인민생활 향상에 성과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sup>46</sup>

## 2.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식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이자 방식으로 제기되고 추진되었다. 2013년 경제·핵병진노선을 확립한 북한은 국방력 강화 못지않게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제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농업, 축산, 수산업 등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국산화정책을 통한 경공업 생산력 증대와 생산현장에서의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집권 첫 해 2012년 신년사에서 “현 시점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임을 밝혔다.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의 방법으로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2014년 2월 6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는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것”을 독려했다.<sup>47</sup> 2015년 신년사는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올 것”과 “농산과 축산,

<sup>46</sup>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국가경제 목표 심히 미진”, 『서울신문』, 2020.8.2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0500001&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0500001&wlog_tag3=naver)> (검색일: 2021.4.20.).

<sup>47</sup> 김정은,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4.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 4.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다.<sup>48</sup>

2015년 1월 28일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 담화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며 축산기지 건설을 독려하였다. 강원도 세포등판 축산기지는 2012년 9월 22일 김정은의 발기로 시작하여 노동당 창건 72돌인 2017년 10월 10일까지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5년만인 2017년 10월 27일 준공식을 했다. 2012년 군 단위에서 시작한 세포등판이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으로 변화하여 초고속으로 건설한 것이다. 단순한 목장으로서가 아니라 늘어나는 북한 주민들의 육류 등의 수요에 맞추어 종합 축산기지 건설을 통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맞춤형 축산업 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수산업과 과수업, 버섯생산에서도 일대 비약을 일으킬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2012년 여름 동부전선 인민군 군부대를 방문하여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해 김정은은 두 차례 수산사업소를 방문했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한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등을 현지지도하고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 집약화할 것을 지시했다.<sup>50</sup>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경제발전전략은 2016년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집대성된다. 제7차 당대회의 핵심은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인민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할 것”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발전하는 나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라고 설명했다.<sup>51</sup>

<sup>48</sup> 김정은, “2015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sup>49</sup> 김효진,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건설개발 동향과 향후 과제,” 『KDB북한개발』, 통권 17호 (2018), p. 26.

<sup>50</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p. 124~155.

<sup>51</sup> 김효은, “김정은 시대 국가운영전략 변화와 리더십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 64.

경제발전전략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었다. 2016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데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이어 전 분야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 정신”으로 정의하고,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력갱생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공업에 대한 강조와 현지지도가 증가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 연설에,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문제를 풀어야 한다.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리고 그 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sup>52</sup> 이후 평양양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김정숙 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잇따른 현지지도로 하였다.<sup>53</sup>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의 건설사업이 매우 활발했다. 건설부분에서도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변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한다”고 했다. 2011년 평양시 창전거리부터 시작된 건설 사업은 평양시 외 원산시, 삼지연시 등 관광도시만이 아니라 지방건설 및 지역 내 공장·기업소, 살림집, 공공건물, 상업 편의시설, 유희오락시설, 교통시설 등을 건설하였다.<sup>54</sup> 2012년에는 창전거리,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조성했다. 2016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여명거리를 건설했다. 이러한 건설사업들을 통해 살림집이 들어서고 나날이 달라지는 평양 거리를 보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지도자의 인민사랑의 결실로 느껴질 수 있는 효과를 얻고자 했을 것이다.

<sup>52</sup>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3.19.

<sup>53</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p. 163~174.

<sup>54</sup> 박희진,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12권 1호 (2020), p. 152.

### 3. 사회분야

사회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정권 안정화와 정책추진을 위해 인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통치기제로 사용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사회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문화·예술·체육은 물론 교육·보건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을 독려하고 김정은의 활발한 현지도로 선대와 다른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는 젊은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민생활 향상에서 경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2012년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등 김정은 집권 2년의 비전들이 등장했다.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이다.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조했고, 각종 유희장과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파격적인 모란봉 악단이 창설되었고,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해졌다. 선대 수령 김정일이 목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달성이 어려워도 사회주의 문명국은 ‘놀이공원’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기 때문에 효과 높은 대중정책인 것이다.

유희장과 체육시설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일은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직접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은 각종 유희시설과 체육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활발한 현지도에 나섰다. 종합 문화후생시설인 류경원은 2012년 5월, 7월, 11월 현지도하고 11월 9일에 준공식을 했다. 2012년 5월과 7월 인민야외빙상장을 방문한데 이어 11월초 완공을 앞두고 또 방문했다. 2012년 3월 24일 문수지구에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을 갖춘 종합 물놀이장 건설 설계를 제시하고 연달아 방문했다. 또한 평양 시내 곳곳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였고 각종 문화시설과 위락시설도 건설하거나 정비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분야의 목표 역시 ‘문명강국건설’로 집약되어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교육을 강조했다. 전반적인 교육수준, 과학기술인력양성, 고등교육, 원격교육,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근로자를 위한 고등교육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sup>55</sup> 김정은이 집권한

<sup>55</sup> 전영선, “김정은의 사회문화 리더십,” 정성장 외, 『김정은 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p. 276.

2012년 가장 먼저 한 제도 개혁이 의무교육 강화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그 추진 주체는 사람이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 강조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도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의 산물이다.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이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이 된다.<sup>56</sup>

학교와 복지·보건시설, 체육·문화시설에서도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7</sup> 특히 체육분야는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부터 중요시되었지만 김정은 시대 대외에 국력과시와 내부 결속요인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북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및 북미관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 IV. 인민대중제일주의 특징과 전망

### 1.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김정은은 2021년 첫 현지지도로 평양 살림집 1만 세대 건설장 착공식에 참석했다.<sup>58</sup> 김정은은 “살림집 건설은 수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첫 해의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sup>56</sup> “논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로동신문』, 2018.6.23.

<sup>57</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 209.

<sup>58</sup> “평양살림집 1만세대 착공…김정은 “벼르고 준비한 숙원사업”, 『한겨레신문』, 2021.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87987.html#csidxdfc1bdc6dedf4268f77edbb92c3d7c9>> (검색일: 2021.4.18.).

계획으로 수정한 북한은 ‘5개년계획 기간’ 전국은 물론 수도에도 매해 1만 세대씩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첫 과제로 선정했다. 일종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현장 ‘정치’인 셈이다. 앞으로도 자원 부족으로 금속·화학공업 등은 어려움이 있으니 과거 평양에 창광거리,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을 조성한 것처럼 가시적 성과가 금방 나고 인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설 부문과 식량증산 부문 등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방식으로 설정한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수정이 있음을 예고한 다음 달인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8차 당대회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 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것과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히 벌일 것을 결정했다. 5개년계획의 첫 해 과업 관철을 위해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의 경제분야 조직과 통제 능력을 복원할 것”, “특히 내각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이 결정되었다.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실현의 제일 장애인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다름바 없는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원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경제분야 조직과 통제 능력을 복원시키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59</sup>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과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의 실천지침이자 당 사업 원리다. 또한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 강화의 논리이자 정책 결정의 정당성의 근거다. 2018년 경제·핵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전략으로 전환한 것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 국력을 높이면서 인민생활도 향상하는 전략이 된다.

김정은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것을 주문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당과 국가와 인민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sup>59</sup> 김상범,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IFES 브리프』, 2021-06 (2021), pp. 2~4.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요구”이며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혁명적당풍, 국풍”이다.<sup>60</sup> 조선노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가는 어머니당”이고 “당과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라는 것이다.<sup>61</sup>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의 담화에서 전 국가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 이면서 각 분야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원리다. 2013년 12월 8일 제1차 건설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했다.<sup>62</sup>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당 사업 전반에 적용된다. 건설에서도,<sup>63</sup> 법무에서도,<sup>64</sup> 보건제도에서도, 선거제도에서도 인민에 대해 멸사복무가 기본 원리다.

## 2. 애민리더십을 통한 통치 기반 강화

어떤 권력이든 피지배자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통성의 기반으로 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책 목표와 추진 방식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확보하고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로 등장한 젊은 지도자는 이전 수령과는 다른 개방적인 면모를 보였다.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육성을 공개하였고, 마지막은 구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로 마무리하며 강하게 손가락을 흔들기도 했다.

김정은의 애민리더십은 활발한 현지도도로 나타났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sup>60</sup>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 『로동신문』, 2019.5.26.

<sup>61</sup> “우리 국가활동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민주조선』, 2019.5.3.

<sup>62</sup>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3.12.8.

<sup>63</sup> “인민들의 편의를 첫 자리에 놓고 건축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민주조선』, 2019.11.15.

<sup>64</sup> “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초하여 보고 대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에서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 것,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무 생활의 조직과 지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 『민주조선』, 2019.11.8.

존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현장에서도 군인, 인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보였다. 집권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 군 관련 공개활동이 활발했는데, 남북 대치의 최전선인 섬 방어대 등 소외지역 부대를 목선을 타고 시찰하는 등 군대와 생사를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대의 생활 개선을 세밀하게 지시하는 등 새로운 군 지도자상을 부각하였다.<sup>65</sup>

김정은은 아이들과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대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했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고 수령은 아버지이다. 김정은은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수령과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보살핌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행보를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 근심걱정없이 생활하는 것이 당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라며 2014년 2월 3일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대한 건설 지시를 하고 2차례 현장 건설지도를 하였으며 10월에는 완공된 시설을 둘러봤다. 2015년 2월에는 원산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학교건설장을 방문했다.<sup>66</sup>

집권 초기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로 뛰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이 후퇴하고 인민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경제건설에 성과가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인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했다.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년 열병식 연설은 인민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김정은은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으로 연설을 시작하고, 연설문 중간에 “사랑하는 인민”이라고 표현한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도 했다.<sup>67</sup> 2017년 신년사에서는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sup>68</sup>고 무오류성의 수령이 자신을 반성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

<sup>65</sup> 고재홍,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관련 공개활동 특징과 전망,” 『INSS 전략보고』, 108 (2021), p. 7.

<sup>66</sup> 김정은은 완공된 평양중등학교를 찾아 칭찬하고(2016.7), 2015년 3월에는 평양양로원건설장을 찾아 6월말까지 마칠 것을 지시하니 8월에 완공했다.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p. 198~208.

<sup>67</sup> 신병주,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 50.

<sup>68</sup> 김정은, “2017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노선을 전환하고 대외관계정상화를 통한 경제발전 계획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2019년 말 전원회의를 열고 '정면돌파전'을 채택했다. 정면돌파전의 불길기 세차게 일기도 전에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대북제재 심화 속에 수해와 함께 북한에 3중고의 위기를 일으켰다.

인민의 정신력과 단결에 호소하는 외에 보족한 수가 없던 김정은은 당 창건 70주년인 2020년을 야심찬 해로 맞이하고 보내려는 포부가 좌절되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 완공을 당 창건 70주년에 맞추고 독려했으나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면돌파전'으로 2020년을 시작한 북한의 10월 10일 당 창건 75돌 기념 김정은 연설의 키워드는 "고맙습니다"이다.<sup>69</sup>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이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극복을 언급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18차례 반복하고, "면목이 없다", "하늘같은 바다같은 우리인민" 등 감성적 표현으로 인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부각하였다.<sup>70</sup>

김정은은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인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은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다"고 인민들의 "최상 최대 신임"을 확신했다. 자신도 "멸사복무의 사명감과 의지"로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바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민의 절대 신뢰는 변함없으니 온 당과 전사회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성과물을 선전하고 있다.<sup>71</sup> 각종 사업의 결실은 모두 지도자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구현인 것이다.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되었으니 김정은의 모든 국가 정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sup>69</sup> "[전문]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 연설," 『연합뉴스』, 2020.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53900504>> (검색일: 2021.4.15.).

<sup>70</sup> 김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정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통권 220호 (2020), p. 4.

<sup>71</sup> "아버이자군님과 김정은원수님의 송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 룡라도를 물위에 떠있는 꽃바구니 처럼, 룡라인민유원지는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인민관, 조국관, 후대관이 빗발치는 사랑의 최고 정화," 『로동신문』, 2012.8.16.; "송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류경원, 행복의 상상봉에 인민이 산다," 『로동신문』, 2012.11.6.; "송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2.11.10.; "아버이 그 사랑 전하는 인민생활향상기지들-평양메기공장," 『로동신문』, 2017.10.6.; "어머니당의 온정속에 솟아난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 수산물식당에서, 대동강반에 울리는 인민사랑의 새 노래," 『로동신문』, 2018.9.15.; "인민사랑의 자욱은 평양버섯공장에도," 『로동신문』, 2019.11.26.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예전처럼 경제성과가 미진하면 솔직히 얘기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인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성과가 미진하면 그만큼 인민에 대한 직접 메시지는 잦아질 것이다.

### 3. 국가 주도의 발전과 동원전략

김정은 시대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였으나 2017년 말부터는 새로운 국가발전 담론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가 소환되었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라고 말한다.<sup>72</sup>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는 수령과 장군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sup>73</sup> 2017년 11월 30일 로동신문에 처음 등장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8년 제기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에 따른 경제건설의 본격화를 위한 ‘발전의 담론’으로, 2019년에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경제건설을 위해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sup>74</sup>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연결하는 ‘국가’주도의 ‘동원’담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이 추구해야 할 리더십에서 당 사업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위해 수령과 함께 멸사복무하여 사회주의혁명 위업 달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15년 신년사는 “어머니 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하여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하고 그래야 인민이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찍이 대중동원전략과 각종 전투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나갔다. 김정은

<sup>72</sup>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9.1.12.

<sup>73</sup>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민주조선』, 2017.12.16.

<sup>74</sup>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 연구』, 23권 1호 (2020), p. 26.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동원의 논리는 자강력제일주의인데, 자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건설현장에서 돌격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sup>75</sup>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가 펼쳐졌다. 건설에서는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군대는 인민의 군대이므로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 참다운 인민군대, 혁명군대는 총잡고 조국을 보위할뿐만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이 행복을 창조하는 힘 있는 선봉대, 돌격대다. 혁명군대는 인민대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재산과 안전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어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도맡아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정면돌파전’ 구호가 등장했다. 물질적 조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력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혁명과 건설에서 만능의 열쇠”, “대중의 정신력은 최강의 무기”라고 하며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sup>76</sup>

북한에서 대중노력동원은 일찍이 김일성시대부터 각종 속도전, 전투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김정은 집권 초기 대표적인 것이 ‘마식령속도’다. 2013년 6월 4일 김정은은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내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을 통해 건설 속도를 높여 조기 완공할 것을 독려했다. 마식령스키장은 2012년 초 봄에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2013년 말에 완공했다. 김정은은 2013년 12월에만 두 차례 현지지도를 했다.

평양의 여명거리의 경우는 군인이 동원되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완공했다. 현장에는 200일 전투 구호 등이 등장하고<sup>77</sup>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계획보다 20일 앞당겨 끝났다”고 선전한다.<sup>78</sup> 세포등판 축산기지의 경우에도 50년 걸리는 걸 5년 만에 준공하였다고 한다.<sup>79</sup> 2014년 12월 15일 김정은이 어린이식료품 공장을 지도했는데, 김정은의 지시 이행을 위해 건설상무

<sup>75</sup> 김창희,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5권 (2017), pp. 99~100.

<sup>76</sup> “대중의 정신력은 최강의 무기,” 『로동신문』, 2020.1.24.

<sup>77</sup> “려명거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로동신문』, 2017.5.11.

<sup>78</sup> “만리마속도로 내달는다. 렬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 『민주조선』, 2016.6.10.

<sup>79</sup> 김효진,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건설개발 동향과 향후 과제,” 『KDB북한개발』, 통권 17호 (2018), p. 36.

조와 돌격대가 구성되고 현지도사적비가 건립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기계대학 등 전문가가 총 동원되었다.<sup>80</sup>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에게 ‘물적필요’를 제공함으로써 인민들을 체제에 효과적으로 순응시키는 전략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중점을 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김정은이 실천하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인민생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는 정책 등을 구사하고 있다.<sup>81</sup>

#### 4. 멸사복무와 관료 통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의지와 적극성이 필수적이다.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sup>82</sup>이고 조선노동당의 혁명적당풍이다.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을 비롯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2021년 4월 북한은 평양에서 생산현장의 세포비서부터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시, 군과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들 모두 1만 명이 참가한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라며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인 세포비서들에게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 것”<sup>83</sup>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경제발전의 계기가 없는 현 상황에서 관료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단세포비서부터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까지

<sup>80</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 267.

<sup>81</sup> 김우영·안경모,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1권 3호 (2018), p. 77.

<sup>82</sup>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 『로동신문』, 논설, 2018.10.30.에서 김정은이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한다고 썼다.

<sup>83</sup> “북,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막.. ‘유일영도체제 확립,’” 『통일뉴스』, 2021.4.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64>> (검색일: 2021.4.25.).

소집하여 전당이 김정은의 유일 영도 아래 제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 총집중하여 결사관철할 것을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은 북한 건국 초기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김정은도 최고지도자가 되자마자 2011년 12월 31일 당 중앙위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sup>84</sup>

2012년 11월 26일 30년 만에 전국 규모의 사법검찰기관 간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 서한에서 “사법검찰일군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sup>85</sup>

2014년 2월 25일 김정은 집권 후 처음 열린 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도전하는 분파행위는 반당, 반혁명”이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 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해야 한다”<sup>86</sup>고 강조했다.

인민생활의 향상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한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은은 현장에서 관료들을 긴장하게 하는 질책에도 거침이 없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5월 평양 만경대유희장 보도블록 사이에 난 잡초를 직접 뽑으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고, 2013년 6월에는 기계공장 혁명사적관 건설 실태를 둘러보며 “한심하다”고 했다. 2014년 4월에는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싸움 준비가 잘되지 않았다”며 군인들의 형식주의를 문제 삼았다.<sup>87</sup>

김정은 시대 관료 통제는 인사와 숙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권 초반기 권력

<sup>84</sup>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p. 80.

<sup>85</sup>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2.11.17.

<sup>86</sup> “김정은 “현대판 종파 청산해야”…유일영도 강조,” 『연합뉴스』, 2014.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77250>> (검색일: 2021.4.20).

<sup>87</sup> “솔직하고 대담한 김정은,” 『한겨레21』, 제1203호, 2018.3.12.,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027.html](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027.html)> (검색일: 2021.4.26.).

공고회를 위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를 인사권을 행사해 군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2인자로 행세한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집권 초기 군부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듯이 당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수시로 간부를 교체했다. 2019년 4월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제7기 4차 회의와 4월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14기 제1차 회의에서 대규모 인사개편을 단행해 권력엘리트들을 교체하였다. 고령 원로인사가 물러나고 지방 경제 부문 엘리트들이 당중앙위원회에 다수 진입하였다.<sup>88</sup>

2019년 12월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김정은 의정보고에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경제사업에서의 전반적 문제도 제기했다. “나라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다”거나 국가의 집행력·통제력이 약화된 점,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사업방식, 내각의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 미약 등을 지적했다. 김정은은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면돌파전 및 대내 결속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엘리트 진용인 전문부서 부장의 2/3를 교체했다.<sup>89</sup> 2020년 8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내각총리를 김재룡에서 김덕중 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했다. 김정은은 정책 평가 기준으로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의 달성 여부에 따른 실적주의를 간부 교체의 정당성으로 삼고자 한 듯하다.

이어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성장목표들이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인정하고 다음해 제8차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sup>88</sup>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7기 4차 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차 회의 특징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 123호 (2019), p. 2.

<sup>89</sup>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KINU Insight』, 2020 No. 1 (2020), p. 7.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8DURQNYG/df614f6c-0f28-47b7-a554-9ec85dcab9d7.pdf> (검색일: 2021.4.21.).

〈표 2〉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특징

분야	전략	내용
정치분야	통치전략	권력 정당성 확보 통치기반 공고화
경제분야	발전전략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사회분야	통제전략	대중지지와 동원 당원과 관료 통제

\*출처: 저자 작성

## V. 맺음말

김정은은 선대 수령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높이고 자신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천명했다.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되어 북한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었다.

김정은은 국가목표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등을 내세우고 각종 구호와 표현, 정책으로 자신의 애민리더십을 환기시키며 인민들을 동원하고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초기에는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이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김정일애국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 다양한 실천 논리를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집권 10년 동안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방식으로 삼았으나 인민생활에 획기적인 향상은 이루지 못했다.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했지만 2020년에는 ‘정면돌파전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다. 5년 만에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열고 당과 내각에 성과를 독려하고 있지만 북한이 처한 대내외 사정이 밝지만은 않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3대 구호가 등장했다. 김일성 시대를 연상시키는 복고풍 구호들이다. 2021년 4월 8일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들고 나왔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털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을 꺼내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수령과 인민이 일심단결해서 고난을 극복하자는 절박함으로 읽힌다. 다만 고난의 행군의 목표와 주체, 방식이 다른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작동하겠다는 것이고 당과 인민이 그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선대와는 다른 방식의 고난의 행군인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 때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에 기초하여 당 사업을 주도할 주체인 노동당 당원 활동 색인과 계열 및 당조직 사업 방식의 혁신을 제기했다. 세부 과업으로 당원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및 당 내 상호비판·사상투쟁·학습강화, 혁명적 규율 수립, 당간부 수준과 능력 제고를 제시했다.<sup>90</sup>

김정은 집권 10년,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부진을 미안함과 감사의 ‘인민사랑’의 표현과 ‘당간부 교체’, ‘질책’ 등 기강잡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성과를 못 내더라도 좀 참아달라는 대 인민 메시지만으로도 성과를 독려하는 강력한 주문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난의 행군’을 할 수는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나타날 때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2017년 성과가 없음을 반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전략으로 국가전략을 변경했음에도 2020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2021년에도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과 같이 최고 통치자 개인의 권한이 절대적인 통치체제에서 가장 위협적인

<sup>90</sup> 박영자,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1-13 (2021), p. 3.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T2MDKIUO/a3985666-70b7-46d7-9da6-f26e55772410.pdf> (검색일: 2021.4.20.).



요소는 ‘인민의 지지가 철회’ 되는 것이다.<sup>91</sup> 인민대중의 삶과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북한 실정인 듯 하다.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었던 선군정치가 선군사상이 되듯듯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도 김정은의 지도사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다른 정책노선과도 결합하기 쉽고 정책추진에 있어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쉽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이며 정치사상적인 특징을 갖는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보다 대중적이고 실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지도사상이 되려면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에서의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 국가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전 자원을 동원하는 논리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이념이 선언적인 ‘주의’가 아닌 국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낼 것인지 북한은 긴 여정 속에 있다.

■ 제출: 4월 26일 ■ 심사: 6월 2일 ■ 채택: 6월 7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17
- 김창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백두혈통과 정치리더십』. 전북: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 김환석. 『북한 지도사상에 관한 연구: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2. 논문

- 김우영·안경모.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1권 3호, 2018.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sup>91</sup> 박영자, 앞의 글, p. 9.

- 김창희.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5권, 2017.
- 김효은. 『김정은 시대 국가운영전략 변화와 리더십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효진.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건설개발 동향과 향후 과제.” 『KDB북한개발』. 통권 17호, 2018.
- 박희진.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12권 1호, 2020.
- 신병주.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이해정 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
- 임을출. “김정은의 경제리더십.” 정성장 외, 『김정은 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 전영선. “김정은의 사회문화 리더십.” 정성장 외, 『김정은 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권 1호, 2020.
-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

### 3. 북한 자료

- 김양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2006년 제4호. 2006.
-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90년 5월 2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_\_\_\_\_.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4년 2월 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 \_\_\_\_\_.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2012년 4월 1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6년 10월 1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 \_\_\_\_\_.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2012년 4월 2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2월 31일)』.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한 연설(2015년 10월 1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_\_\_\_\_.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2016년 6월 6~7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1991년 5월 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16.
-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 윤명현. 『우리 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정광현.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 지도사상의 위대성.” 『천리마』. 2018년 제1호, 2018.

#### 4. 기타 자료

- 『뉴스1』.
- 『로동신문』.
- 『민주조선』.
- 『서울신문』.
- 『연합뉴스』.
- 『충북청년신문』.
- 『통일뉴스』.
- 『한겨레신문』.
- 『한겨레21』.
- 고재홍.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관련 공개활동 특징과 전망.” 『INSS 전략보고 108』. 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7기 4차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특징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 123호, 2019.
- 김갑식.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 포럼. 2021.
- 김상범.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IFES 브리프』. 2021-06, 2021.
- 김호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정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통권 220호, 2020.
- 박영자.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1-13, 202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KINU Insight』. 2020 No. 1, 2020.

홍민 외. “북한 조선로동당 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2021 No. 1, 2021.

## Abstract

# Study on the Ideology and ‘People-First’ in North Korea

*Kim, Hyeoun*

The keyword of the Kim Jong Un era, which took over Kim Jong Il’s legacy as a strong nation, is “people.” The paper analyze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people-first politics,” which was emphasized during the Kim Jong Un era and recently formalized in the Rodong Party’s revised protocol as a basic socialist political method.

Kim Jong Un established “Kim Il Sung-Kim Jongllism” as the basis of his rule from the early days of his reign and defined the essence as People-First. North Korea’s ideas led to Kim Il Sung’s Juche ideology, Kim Jong Il’s Korean-style socialism and Songun ideology, and were established as Kim Il Sung-Kim Jongllism during the Kim Jong Un era. If Kim Jong Un’s ruling ideology is Kim Il Sung and Kim Jongllism, the essence of it is People-First.

The core concept of North Korean thought is the ‘people’s public’. In North Korea, the people’s public was the main force of the revolution from the time of Kim Il 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the Juche ideology started and organized from the idea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Imin Wicheon”. Kim Jong-un also set national goal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solidifying the regime and making achievements through patriotic leadership. Both parties and the whole society were ordered to serve the people with contempt. People-first also served as a means of encouraging the people, the military and bureaucrats to build the economy.

People-first Politics, which has recently been upgraded to a “basic socialist political style” in the Rodong Party’s protocol, is likely to become a leader of North Korea, just as the Songun politics, which was the basic socialist political method during Kim Jong-il era, became a military-first ideology. It is Kim Jong Un’s task to see how People-first works as a governing ideology of the Kim Jong Un era,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 party and a nation’s operating principle, an efficient governing system of society, and to bring about results to improve people’s lives.

**Key Words:** People-First, People-First Politics, Socialism basic political style, Juche Ideology, Songun Ideology, Kim Ilsung-Kim Jongllism

